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 News
- 道,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 ②
 - 光銀 신입사원 체험현장 ③



- 여도초 관현악단 유럽공연 ④
- PGA 위창수 첫날 2위 ⑮



- Jeollado
- 그 사람-안종일前교육감 ⑦

- Entertainment
- 드라마 하얀거탑 화제 ⑧
 - 연예인 애니 더빙 북 ⑨

- Wellbeing
- 식품 집중 탐구-파래 ⑬



포항백화점 57년 역사인 전통
부의 새로운 명품쇼핑몰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 상봉점 052-707-0114 ▶ 707-0070-0079
새로 일하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ac.kr
▶ 신원점 058-307-0171 ▶ 058-380-0000

구두둑이→ 판사→ 변호사 변신 앞둔 서정알 광주고법 판사

“이젠 ‘약자의 눈물’ 대변할 터”

“받았던 만큼 베푸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구두둑이 출신 판사로 더 잘 알려진 광주고등법원 서정알 판사(45·사진). 주변여건의 불리함과 약조건을 딛고 어렵게 ‘법복’을 입었던 그가 10년 간의 판사 생활을 접고 재야법조계로 떠난다. 지난 때문에 고향을 떠나 17세 때 상경



였는지, 혹시 판결로 인해 억울한 사람은 없었는지 하는 생각에 요즘 밤잠도 못 이루기 일쑤다. 하지만, 그는 10년간의 법관 생활에 만족한다. 법률과 양심에 따라, 또한 일반인들의 상식에 벗어나지 않은 선에서 모든 판결을 해왔다고 자부하기 때문이다.

이제 그는 한 달 뒤면 변호인으로 법정에서 서게 된다. 새로운 삶인 만큼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있다.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의지와 노력도 중요했지만, 지금껏 주변의 도움과 관심이 없었다면 힘들었거나 불가능한 도전이었을 것”이라며 “이제는 남에게 베푸는 행복

양심따라 모든 판결 자부

(上京), 구두를 닦으며 독학으로 중·고등 검정고시에 합격한 그는 서울대 경제학과와 사법고시 합격하면서 많은 언론의 관심과 집중을 받으며 ‘금의환향’했다. 그런 그가 올해 퇴직을 신청했고, 다음 달 12일께 법원을 떠나 변호사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다. 운명처럼 주어진 모진 가난과 주변의 약조건을 딛고 ‘판관(判官)’으로 화려한(?) 변신을 했던 그였던 만큼 퇴직 날짜가 다가올수록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그동안 사건 당사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

였는지, 혹시 판결로 인해 억울한 사람은 없었는지 하는 생각에 요즘 밤잠도 못 이루기 일쑤다. 하지만, 그는 10년간의 법관 생활에 만족한다. 법률과 양심에 따라, 또한 일반인들의 상식에 벗어나지 않은 선에서 모든 판결을 해왔다고 자부하기 때문이다. 그는 판사 시절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질문을 받았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탓에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조금은 관대했을 것이라는 질문이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다. 그는 이에 대해 “본인 의지만 있으면 범죄 유혹에 빠지지 않고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데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탓하며 법을 위반한다는 것은 옳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남에게 베푸는 행복 느낄 터

최근 사법부를 향한 비난에 대해 그는 “부장판사 석공테러, 법조 비리 등으로 인해 사법부가 권위를 치르고 있지만, 국민이 생각하는 만큼 사법부는 썩지 않았다”면서 “그래도 법의 최종 단계인 사법부가 국가의 어떤 조직보다도 제일 깨끗하고, 지금 추진중인 구술주의·공판중심주의 재판은 사법부 개혁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사진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환경영향평가 대폭강화 ‘동장군’ 기세 등등

체육시설 등 중·소사업장까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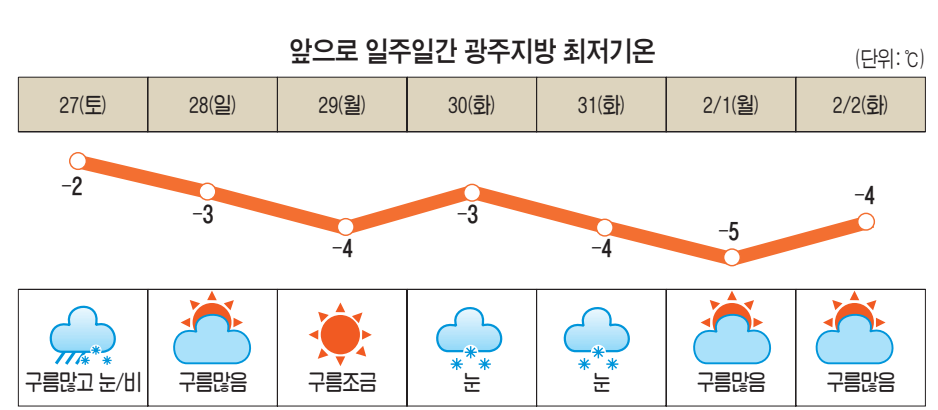
관련 조례안 의회 상정
광주시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를 관련법 규정보다 강화한다. 광주시는 26일 “택지개발과 도로건설, 산단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에만 적용됐던 환경영향평가 범위를 중·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조례안을 마련, 이날 시의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택지개발을 비롯한 주거환경 개선사업·공단조성·체육시설 등 12개 분야 39개 사업이며 각각의 기준을 초과할 경우 동·시

내달초까지 폭설·강추위
주말과 휴일인 27일과 28일 광주·전남지역은 움츠러든 동장군이 기세를 펴며 많은 눈과 강추위가 예상된다. 이번 추위는 다음 주말까지 기승을 보인 뒤 2월 4일께나 풀릴 전망이다. 광주 지방기상청은 “27일 오전까지 광주·전남지역에 적게는 3cm에서 많게는 10cm까지의 눈이 내린 뒤 오후부터 남쪽으로 내려오는 북쪽의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점차 겹 겹 것”이라고 26일 예보했다. 기상청은 또 “눈과 함께 주말인 27일 광주·전남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6

도까지 떨어지고 낮 최고 기온도 1~5도로 추운 날씨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전남 일부 지역 및 대륙산도 풍도에 내려진 강풍주의보와 전북 지역에 발효된 대설주의보는 27일 낮 해제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28일에도 서해안 쪽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눈이 많이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추위가 계속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추위는 다음 주 까지 이어져, 2월 1일 광주의 최저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고 낮 최고 기온도 1~4도에 머무르는 등 당분간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인 강추위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26일 오후 광주시 동구 충장로에 나온 시민들이 두꺼운 옷차림으로 함박눈을 맞으며 걷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일보사 제42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일시: 2007. 3. 1(화) 오전 8시
장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천동 1-1 남부대학교
참가비용: 4천원(물병, 배낭, 배낭, 배낭, 배낭)
참가수령: 2007. 1. 31(수)까지
신청방법: 전화 신청 (062-226-1111) 또는 인터넷 신청 (www.kwangjuilbo.com)

3·1절 기념품: 배낭, 배낭, 배낭, 배낭, 배낭

062-226-1111